

‘길 없는 길’에서 禪의 원류 만나다

수덕사, 4월 16~18일 국제선수행대회 개최



지난해 6월 열린 제1회 국제선수행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가야산길을 걷고 있다.

한국불교의 중흥조 경허 스님의 가르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 법회가 열린다.

덕숭총림 수덕사와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오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수덕사 일원에서 국제선수행대회 ‘길 없는 길’을 개최한다. 이번 법회는 지난해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을 기념해 처음 열린 무차토론편제가 성공적으로 회향한 데 힘입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2차 대회는 만공 스님의 탄생일(음력 3월7일)에 맞춰 임재해 경허, 만공 스님

송산 스님 외국인 제자 등
사부대중 700여 명 참석
선수행 토론·음악회도 진행

으로 이어지는 선맥의 가치를 되새긴다. 임재식과 회향식에서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서며, 17일에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초청법사로 법문을 설할 예정이다. 외국인 스님으로는 무

상사 국제선원 조실 대봉 스님과 헝가리 원광사 주지 청안 스님이 법석에 오른다.

경허 스님을 선양하기 위한 음악회도 진행된다.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총감독을 맡은 이번 음악회에는 도신 스님과 가수 장사익, 김덕수 사물놀이패, 박애리와 팝핀현준, 래퍼 아웃사이더 등이 무대의 흥을 더 한다.

또한 박범훈 前 수석이 작곡하고 반영규 불교음악 작사가가 작사한 경허 스님 추모곡도 이날 음악회에서 처음 선보여질 예정이다.

경허 스님의 수행 발자취를 따라 걷는 순례도 진행된다. 가야산 백제의 미소길을 출발해 보원사터와 서산대에삼존불, 간월암으로 이어지는 길을 걷는 이번 순례에서는 대봉 스님과 청안 스님의 야단법석도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송산 스님의 외국인 제자 스님과 일반 재가자 150여 명을 비롯해 총 7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수덕사 총무국장 효성 스님은 “경허 스님에 대해서는 일화와 같은 단편적인 모습만 알려져 왔다. 가르침에 대한 연구성과도 미미한 실정”이라며 “국제선수행대회를 매년 개최해 한국의 선지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나 인터넷(www.sudeoksa.com)으로 신청하면 된다. 스님은 참가비가 무료이고 재가자는 7만원이다. (02)2198-5388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역독거어르신 ‘행복찾기테마여행’

용호복지관 경남산청 봄나들이

부산 용호동 지역 독거어르신 12명이 3월30일 한화호텔&리조트 해운대 티블리 임직원과 함께 경남 산청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여행은 부산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 한화호텔&리조트 해운대 티블리(본부장 정용), 부산여성회관(관장 박의숙)의 민·관·기업의 사회공헌협약에 따른 노후지원프로그램 ‘기본 좋은 이

야기’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자신의 고향 산청 지리가 첫 번째 테마 여행지로 선정돼 감회가 남달랐다는 정순심 어르신은 “17살 나이에는 정면의 저산이 크게 보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작아진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한화호텔&리조트 해운대 티블리 관계자는 “행복을 찾는 테마여행을 통해 독거어르신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 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용호복지관 어르신 봄나들이.

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수 기자장

범어사 4일 불이문 상량식

선찰대본산 범어사에서는 4월 4일 불이문 상량식이 봉행됐다. 범어사 불이문은 화재로 소실되었던 천왕문을 새로 불사하는 과정에서 위치상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재시공을 진행해 왔다.



범어사 불이문 상량식.

새로 복원하는 불이문의 상량문은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이 지었으며, 범어사 강주 용학 스님이 상량문을 봉독했다.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은 “많은 사부대중들의 노력으로 불이문이 다시 그 위용을 갖추게 되어 기쁘다”며 “아울러 보제루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월20일 완공을 목표로 기와·단청불사만을 앞두고 있으며, 천왕문에서 보제루 하부통행로까지 보살계수계산립 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박경수 기자장

이서 중고교 수계 법회

무일 학원이 운영하는 경북 청도의 '참 좋은 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참 좋은 이서 중고등학교' 불교학



이서 중고 합동 수계법회.

생회 보리수 학생회 회원 300여 명은 3월 30일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큰전에서 수계식을 갖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등 5가지 계율을 지키겠다는 수계절을 지니고 부처님전에 서원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불교대학 회주 우학스님은 범어를 통해 ‘불교는 우리 민족 문화의 한 부문’이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저마다 부처님의 마음 씨앗을 키워나갈것”을 참석한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보리수 학생회는 수계식을 전후해서 불교예절 불교기초 교리를 배우고 친교시간을 갖는 등 사찰에서 알차고 흐뭇한 주말을 보냈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찰마당에도 전통이 있는데...

절 마당은 본시 비워둔 공간이었다. 법당이 작아서 치르기가 어려웠던 행사와 외부 공간에 적합한 의식은 마당에서 봉행하는 것이 상례였다. 과불대에 과불을 걸어놓고 야단법석을 여는 장소가 바로 절 마당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절 마당은 오랜 세월 그 자리에 덮여있던 흙 그대로이거나 흙 위에 마사토를 깔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포장 방법이었다. 별로 특별한 기술이나 공법을 동원하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일어나 씨리미로 쓸어놓은 마당을 보면 정갈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요즘 일부 사찰에서는 장식성이나 기능성을 높이고자 마당에 잔디를 까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잔디를 깔아서 마당을 아름답고 정갈하게 관리하려는 마음이야 높으나 살만하지만 잔디를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잔디는 매우 까다로운 식물재료라서 배수가 잘 되지 않거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수분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잡풀들이 침범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좋지 않은 상태를 보이게 된다. 정말 애지중지 관리해야 잔디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

요즘은 잔디를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서 도심의 주택정원이나 도시공원 혹은 골프장이나 축구경기장 같이 잔디가 많이 심어져 있는 곳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준다. 그러나 사찰의 경우에는 잔디의 피복면적이 넓지도 않고 거리도 멀어 전문 잔디관리회사에서 일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고 보니 사찰의 잔디관리는 절에 사는 스님이나 종무원 혹은 불자들이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열심히 관리해도 잔디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 난감할 뿐이다. 잔디를 깔아놓은 절에 가보면 잔디 밟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돌이나 벽돌 같은 것을 징검다리처럼 놓아 그것을 밟고 다니도록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밧줄을 재료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잔디관리를 위해서 우리네 사찰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마당경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절 마당에 깔아놓은 잔디는 관리가 쉽지 않아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충남 사찰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1권

전생투시론

지금까지는 전생(前生)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론이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개개인의 사주를 토대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생에 어디에 살았으며, 무엇 이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현생에 고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영혼투시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최면요법이 절대 아닙니다. 또 빙의가 되었는지, 어떤 조상영가가 지금 고통을 주는 것인지도 알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靑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제1권 345쪽



사차원운명둔갑술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2권

십자성래점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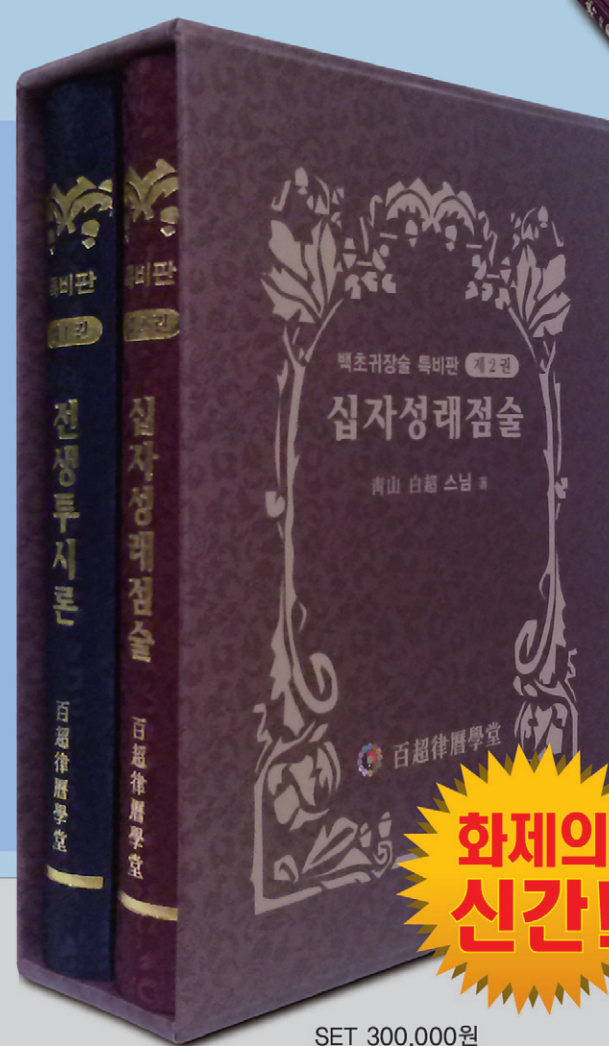
사람의 운명의 길흉을 판단할 때 지금까지는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아서 감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성래점술은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지 않고도 상담자가 묻는 질문의 답을 알 수 있고, 된다 안된다와 하라 하지마라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신 비법을 공개합니다. 인도의 점성술 천궁도와 귀장술의 12신궁으로 만들어진 12궁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면 됩니다.

靑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 제2권 350쪽

◆ 책 구입은 서점으로 배포되지 않고 백초율력학당에서만 판매합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041)943-6882 / 010)3813-4443



SET 300,000원



百超律曆學堂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예금주 : 김경석